

특별 전시

Special Exhibition

긴 글 주의



문자의 미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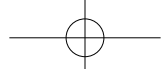
Too Long,
Didn't Read

What Is the Future of

Writing Systems?

2023. 6. 30. ————— 11. 19.

MW



전시를 열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소통 방식도 변화합니다.
최근에는 이미지, 영상 등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긴 글은 읽기 힘들고 지루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박물관의 개관을 기념하는 첫 특별전으로서
이러한 소통 방식의 변화와 문자의 역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를 마련하였습니다.

즐거운 경험과 질문이 있는 전시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Opening the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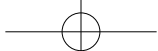
As the times change, the way we communicate also changes. In recent years, more and more people use images and videos and they find it difficult or boring to read long text.

For our first special exhibition, to commemorate the opening of the museum, we wanted to examine these changes in our communication methods and question the ongoing role of our writing systems.

We cordially invite you to visit our exhibition, which offers a wealth of insightful questions and enjoyable experiences.

* ‘긴 글 주의’는 주로 인터넷 게시판에서 사용하는 말로, 게시글이 길어서 읽기 힘들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에는 문자 매체보다 영상, 사진 등에 익숙해진 현대인의 성향이 반영되었습니다.

* “TLDR” is an acronym for “Too long, didn’t read.” It is widely used as a comment on social media to indicate that the preceding post or linked article was ignored because it was considered to be too long, and thus burdensome to read. Such comments reflect the contemporary preference for images and video over written text.



들어가며

Prologue



우리는 보고, 듣고,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문자로 기록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문자 매체와 비문자 매체가 뒤섞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We are beings that see, hear, and move.
We are also beings that use words to
document ourselves. In a world where text
and non-text are increasingly intertwined,
how do we communicate?
Let us know what you think.



질문에 답해주세요! How to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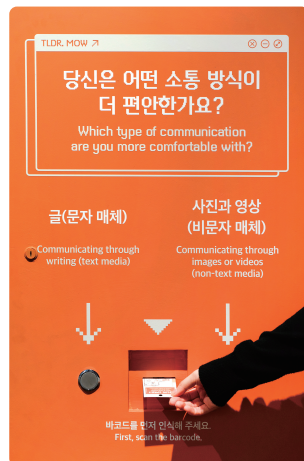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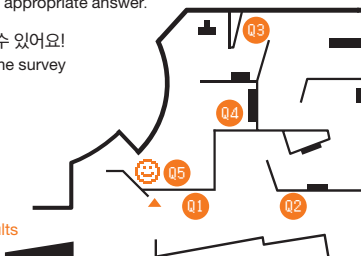
체험카드의 바코드를 센서에 인식 후,
Scan the barcode on the card with the sens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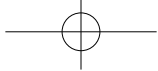
버튼을 눌러 답을 선택하세요.
Press the button to select the appropriate answer.

전시 끝부분에서 통계를 보실 수 있어요!
Check the current results of the survey
at the end of the exhibition!

Q1 ~ Q5 질문 Questions

결과확인 Check the Resu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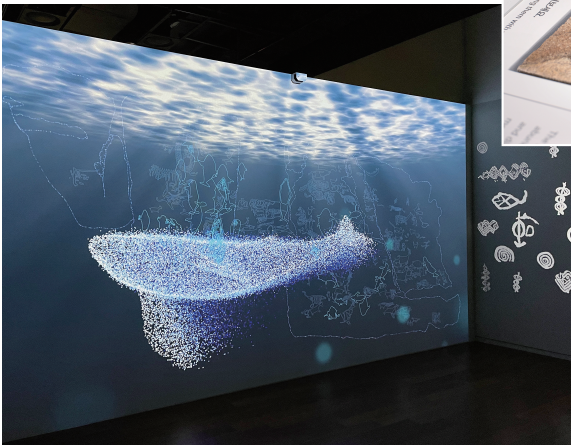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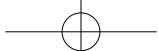


1 그림에서 From Images

문자가 없었던 시절, 옛사람들은 그림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림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이 그림을 새긴 옛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었을까요?

Before the invention of writing systems, they used images to convey information. Today, we can read their images as stories. What types of stories did ancient people tell with these engraved images?





2

다시 그림으로

Back to Images



우리는 오랫동안 문자를 편리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림도 문자처럼
쉽게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어떻게 문자를
대신하여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People have used written language for a long
time, and understandably so.
But today, images can be shared and stored
just as easily as text. In the contemporary era,
how do we communicate with images,
rather than text?

픽토그램(그림 문자) Pictogra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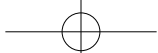
픽토그램은 글 대신 그림으로 의미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그림 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림이기 때문에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글을 못 읽거나 언어가 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모티콘(그림말) Emoticons and Emojis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모티콘은 그림을 말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림말'
이라고도 합니다. 신나는 표정, 미안한 표정, 익살스러운
동작 등 이모티콘은 글로 전하기 힘든 느낌을 전해 줍니다.



3 | 경험에 더 가까이 Closer to Experience

기술이 발전하여 이미지와 영상을 다루기 쉬워지자, 자연스럽게 보고 듣는 자료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경험과 감각에 가까운 매체가 문자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Advancements in technology have now made it even easier for us to receive and understand images and sounds. In turn, audio-visual materials are increasingly being used to supplement or even replace written text.

박물관 홍보담당자의 하루 A Day with Ms. Young, Museum Public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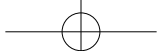


인포그래픽!
그림이라 보기도 쉽고,
내용이 한눈에 정리되는 느낌인데?

큰 사진과 글씨,
잘 정리된 요점으로만 이루어진
카드뉴스 형식을 적용해
보는 것도 좋겠어.

영상으로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집이 맞집이다!





다시 들어가며

Epi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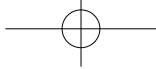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문자가 점점 사라질 거라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In our rapidly changing world, some think that text will eventually decline, while others say it will become even more important in the future. Which side do you tend to agree with?



시대가 변하면서 소통의 수단도 변화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계속 발전시키고 적절히 활용할 때
우리가 만드는 소통의 미래도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As times change, so do our means of communication.
The future of communication will be greatly enriched
if we continue to develop and use diverse forms of
communication in the most suitable way.



관람 시간

10시 - 18시

*입장 마감 17시 30분

휴관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관람료

무료

*20명 이상 단체의 박물관 관람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오시는 길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17
(센트럴파크역 3번 출구)

문의전화

032-290-2000, 2001

박물관 편의 시설

1층 안내, 뮤지엄샵, 물품보관소, 수유실
2층 카페테리아, 산책로



Hours

10:00 - 18:00

*Last admission at 17:30

Closed

Every Monday, January 1,
Lunar New Year, and Chuseok

Admission

Free

*Reservations are required for
groups of 20 or more.

Address

217, Central-ro, Yeonsu-gu, Incheon
(Central Park Station Exit 3)

Inquiries

032-290-2000, 2001

Museum Facilities

1F Information desk, art shop,
locker, lactation room
2F Cafeteria, walking path